

말씀의 샘

합당한 그릇 <빌립보서 4장 11~19절>

성경에는 600가지가 넘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조건과 우리의 행동이 요구되지 않는 축복의 약속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 말씀을 흔히 축복장이라고 일컫는데, 자세히보면 축복에 대한 말씀이 1/3정도 되고 나머지는 모두 무서운 경고와 저주의 말씀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 또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면”이라는 우리 행동에 따른 조건이 붙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이미 주신 것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각각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약속의 성취를 두고 각각에게 행동과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줄 아는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특권도 크지만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책임도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이번 송구영신예배 때에 2016년 약속의 말씀을 뽑는 것도 무조건 축복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책임과 행동이 없는 축복은 팔자, 운명론에 입각한 올해의 운세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축복을 위한 우리 믿음의 행동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뜻을 정하여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 30:15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16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한해를 돌아보면서 결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안되었는지,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는지, 왜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경험할 수 있었는데 왜 여기에 머물러야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때 2016년도에 훨씬 더 발전된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은 과연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며 어떠한 행동이 필요한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과정을 통과하여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2016년에는 더욱 능력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은 뭘까요?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변질되고, 물질과 세상에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능력은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건디는 능력말입니다. 지금은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시험이 와도 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떠난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신앙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빌 4: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힘만 주시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각오가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흔들리지 않을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11~12절에서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어디에도 처할 줄 아는 적응력과 유연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능력주시면 다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것 자체가 능력이기도 하고, 또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더 풍성하게 부여주시기도 하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안정되니까 놀라운 계시와 놀라운 능력이 제한 없이 부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태위태한 사람에게는 무엇도 말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정서를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안정된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안에 능력 받을 그릇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유연성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입니다. 때로는 시험과 때로는 영적전쟁과 때로는 축복과 응답도 경험하면서,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을 능력 받을 그릇으로 만들어가며 자족하기를 배우는 과정,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과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며 심는 것이 필요합니다.

빌 4:14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5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교인들은 바울에게 우리나라는 고마움과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남들 안할 때, 남들 빠질 때, 다들 무관심할 때 빌립보교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다해 동참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2015년 두란노교회 어려움을 함께 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는 고마움과 축복입니다.

빌 4:16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17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8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리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선교를 시작할 때 빌립보 교회가 자원해서 선교비로 심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꼭 필요한건 아니었습니다. 풍족하게 이미 선교비가 있었습니다. 굳이 보내지 않아도 됐었고 꼭 필요한 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그 일이 너무 귀한 것인거죠. 꼭 필요한 예물이나 아니냐를 떠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원해서 심는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 4:19 나의 하나님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여 동참한 자들,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여 심은 자들에게 주시는 확실한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오늘 말씀에서 빌립보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이런 능력과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길 축원 드립니다. 우리 두란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과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풍성한 축복으로 충만한 2016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015. 12. 27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2016. 1. 3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누가복음 1장 8~20절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7:30

* 예배중 헌금시간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헌금함이 마련되어 있으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려 드리시길 바랍니다.

